

### 공동체 소식



## 대림 제4주일

졸으신 아버지 하느님, 끝없는 사랑으로 동정 마리아의 흠 없는 몸을 선택하시어, 죽을 인간의 몸이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셨으니,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 12월 기도지향

- 김호원(요한), 박정자(수산나) 가정
-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가정

#### 대림시기

대림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앗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 주년이 시작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의 생활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 성탄 전례

- 구유 예절 및 성탄 밤미사 : 12/24(화) 오후 7시
- 성탄 대축일 미사 : 12/25(수) 오전 11시

\* 성탄 구유예물은 과테말라 San Miguel Escobar 본당에 송금됩니다. 많은 관심과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 견진 대상자 모집

내년 3월 28일(금) 홀리트리니티 본당에서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은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례분과에 신청 바랍니다.

#### 구역회의

- 일시 : 12/22(일) 1시
- 장소 : 회관

####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새해가 시작하는 1/1(수)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오전 11시 중심미사가 있고, 미사 후 친교의 식사가 있습니다.

#### 기타

- 대림 특강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구역 관공성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세대에 감사드립니다 (26명).
- 오늘 중심미사 후, 임시 전례회의가 있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2014년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4	210	178/496	114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고영방(스테파노)	문석찬(요 셉)
	고평원(프란치스코)	문호진(안토니오)
차주	안광민(야 고 보)	이우영(가브리엘)
	안광희(크리스토퍼)	이원준(요 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 네 스)

####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박옥희, 전현교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김정애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백문주(엘리사벳), 박희영(카타리나)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15	85명	345불	660불
감영진, 한봉경, 김정환, 김정원(총 4세대)			

☞ 성탄대축일(12/25) 주보는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초 네 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요셉처럼 주님께 순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분께서 오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인간의 상식보다 하느님의 뜻에 두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성화해설

요셉의 꿈  
(가에타노 간돌피, 1790년 경, 유채, 개인 소장)

요셉은 구세주 탄생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마태 1,24 참조), 구세주 탄생의 증인이 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성모자를 정성껏 돌보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강생과 하느님의 인간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셉과 같은 굳은 신앙과 부성애로 무장한 아버지들이 온갖 위기에 처한 가정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이사 7,10-14 <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



주 님 게 서 들 시 려 하 시 나 니 주 님 게 선 영 광 의 임 금 이 시 로 다

○ 주님 것이로다. 땅이며 그 안에 가득 찬 것 이, 온누리와 거기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다 위에 그 터전을 마련하시고, 강물 위에 그 물을 굳히셨도다. ◎

○ 주님의 산으로 오를 이 누구인고? 거룩한 그곳에 서있을 이 누구인고?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 정한 이, 헛군 데에 정신을 아니 쓰는 이로다. ◎

○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갚음을 받으리라. 이런이야 주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이로다. ◎

제 2 독 서 : 로마 1,1-7 <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 음 : 마태 1,18-24 <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

# 쉐 마

## “우리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래 전 제가 사목했던 본당 근처에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봉성체를 하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본당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 역시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 “신부님, 우리 집 식구는 세 명이에요.” / “예?” / “성모님, 예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 성인만 불쌍하게 됐네요.”라고 농담을 하자 할머니께서 “그러네요!” 하시고는 이내 까르르 웃으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그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자성사를 받으셨는데, 그날따라 곱게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신부님! 절 받으세요.” / “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손자뻘인 제게 왜 절을 하시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요. 이 누추한 곳에 매달 와 주신 것도 고마워서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있는 제게 불편한 몸으로 자꾸만 절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것만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신부님, 나는 성모님,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 어딜 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 후 채 한 달이 못 되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을 지켰던 신자들이 할머니가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난 성모님,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라고 말씀하시며 소녀처럼 활짝 웃으시던 그 할머니의 미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청년 요셉에게 천사는,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리라는 소식

을 전합니다.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사람은 당사자인 마리아였습니다. 천사의 말인즉, 그가 낳을 아들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마태 1,20-21 참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는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마 내버리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서 함께하신다는 깊은 믿음에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둠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여도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시편 23,4 참조)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에 신음하고 억울함에 서러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힘을 내어라.”

- 서울대교구 허영엽 마티아 신부 -

# 마중물

## 백혈구와 적혈구

우리의 몸의 혈액에는 백혈구와 적혈구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면 얼른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커다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백혈구가 병균을 처리하는 방법은 절대 무력을 쓰거나 학대의 방법이 아닙니다. ‘넌 왜 그렇게 더럽니? 넌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그렇게 놀려대지도, 아주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침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며 품안에 꼭 껴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겁니다. 백혈구에게 안긴 그 침입자는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 본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침입자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백혈구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백혈구는 모두 다 껴안아 줍니다. 그는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는 또한 적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혈구도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굽니다. 우리 몸에 있어 산소란 건 정말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혈구는 언제나 이리저리 다니다, 산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것도 조금만 챙겨두면 좋을 텐데 100%다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4일쯤 살아 있다가 몸의 어느 구석에선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바로 이런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작은 생명들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랑을 행할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장 속에 깊이 담겨있는 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이기적이고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몸에도 지금 사랑의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유유히 흘러가는 바로 당신의 핏속에서 말입니다.

# <성탄 대축일 전례>

### 전례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전야	91	103/105	101	102
대축일	103	107	101/109	102

### 대축일 복사

	항 복사	시중 복사
전야	전체 복사	
대축일	문석찬(요 셉)	차호섭(요 셉)
	문예나(요 안 나)	차서은(세라피나)

### 전례 봉사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전야	최은미(아 네 스)	조장군(바 오 로) 우숙정(아나스타시아)
대축일	박혜정(카타리나)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 브 가)

이번 주, ‘신앙의 해’ 교육자료는 쉽니다.